

ITU-D SG1, SG2 회의

서보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실장, TDAG 부의장

김애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연구원



1. 머리말

ITU의 개발부문인 ITU-D에는 2개의 산하 연구반 SG1, SG2가 있다. SG1에서는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 사이버보안, ICT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관련 이슈를 다루고, SG2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기술개발, 긴급 상황 통신과 기후변화 대응을 다룬다. 이들 각 연구반은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관심 대상인 전기통신 관련 9개의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ITU-D 연구반은 4년을 한 회기로 운영되며 2010년 6월 개최된 ITU-D 최고 총회인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연구반 연구과제의 재조정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어 현재 2010~2014년 회기가 진행 중이다. ITU-D 연구반은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연구과제별로 개발도상국이 참조할 만한 각 국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기고서 발표 및 2013년 회기 종료시 출간될 연구과제결과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회기의 두 번째 정기회의가 2011년 9월 5일(월) ~ 9월 16일(금),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ITU 회원국 66개 정부대표 및 부문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 중 한국에서는 2명(국가대표 2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기고서 165건이 제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총 13건의 기고서를 제출·발표하였는데, 13건 기고서 모두 회의결과에 반영되었다.

2. 회의내용

2.1 개요

SG1 본회의는 SG1 의장인 미국의 록산르(Roxanne Mcelvane), SG2 본회의는 SG2 의장인 알제리의 모크랜(Mokrane Akli)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SG회의의 기고서는 회의 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액션(action)과 회원국의 사례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는 인포메이션(infomation)으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SG 정기회의에서는 액션 기고서만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고서 검토 결과 액션 기고서와 인포메이션 기고서의 구분이 모호하고 인포메이션 기고서에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할 유용한 내용이 많아 금번 회의부터는 모든 제출 기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회의에 이어 ITU-D SG의 각 연구과제별 세션이 2~3시간 정도 연구과제 라포처(라포처 부재시 부라포처)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SG에 앞서서 1년에 한 번씩, 각 연구과제별 라포처와 부라포처가 모여 라포처 회의를 진행하는데, 올해에는 3월~5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SG 정기회의에서는 연구과제별 라포처 회의의 주요결과에 대한 보고와 회원국이 제출한 165건의 기고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4년을 한 회기로 운영되는 연구반의 경우 회기 종료시 각 연구과제별 결과보고서가 발간되는데, 회기 중 두 번째 정기회의인 금번 회의에서는 연구과제별 결과보고서의 목차 및 개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과제 결과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담은 기고서의 경우 연구과제 관련 사례는 모두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알리며, 회원국 및 부문화원의 적극적인 기고활동을 독려했다.

2.2 SG1 주요내용

SG1 연구과제는 총 9개이며 총 77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었고, 한국은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연구과제 7-3)을 포함하여 총 9건의 기고서를 제출했다.

연구과제 7-3(브로드밴드 서비스에의 보편적 접속을 위한 규제정책)에서는 16건의 기고서가 소개·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본 연구과제에 대하여 2건의 기고서를 발표했다. '초고속 정보통신인증 업무 처리지침 개정' 기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기고서는 2009년 SG1 정기회의에 제출한 기고서로서 최근 개정버전이다. 또한 '한국의 정보화촉진기금제도에 대해 소개를 하는 기고서도 발표했다.

연구과제 19-2(개발도상국에서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도입)에서는 총 7건의 기고서가 소개되었으며, 미국 AT&T에서 제출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고서는 라포처의 사전요청으로 특별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소비자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발도상국에 기회모델이 되지만 보안, 신뢰성,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은 '인터넷 전화 촉진 전략' 기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과제 20-2(장애인 통신서비스와 ICT 접근)의 라포처는 전세계 인구의 10%가 장애가 있으므로 장애인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강조하였다. G3ict는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 보조기술, 서비스'를 주제로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총 13건의 기고서를 제출했으며, 한국은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기고서를 발표하였다. 부라포처는 한국의 법은 미국, 프랑스와 유사하여 추후에 한국의 사례가 보고서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연구과제 22-2(정보통신 네트워크 보호: 사이버보안 문화 개발 우수사례)에서는 총 11건의 기고서가 소개되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안전략과 실행' 기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휴대전화 실명 등록제' 기고서를 소개했다. 발표에 대해 휴대전화 보안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시큐리티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라포처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되었다. 또 연구과제 19-2에서 소개된 미국 AT&T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안' 이슈임을 제기하였으며,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토고 등 많은 회원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2.3 SG2 주요내용

SG1 연구과제는 총 9개로 총 88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었다. 한국은 '한국 온라인 전자조달청 시스템(연구과제 17-3)'을 포함하여 총 4건의 기고서를 제출하였다.

연구과제 10-3(벽촌지역을 위한 통신)이 ITU01101-T SG13에서 'ITU-T에서 진행되는 미래 네트워크'에 대해

여, 일본 KDDI는 '일본에서의 모바일 WiMAX'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총 14건의 기고서가 소개되었으며, 한국은 '한국 벽지지역의 브로드밴드인터넷' 기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과제 14-3(e-헬스를 위한 정보통신)에서는 2011년 3월 일본 동경에서 'e-헬스를 주제로 진행된 ITU 아태지역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Tokyo Call for Action'¹⁾이 승인되었음을 알렸으며, 러시아, 캐나다 등의 회원국은 'Tokyo Call for Action' 제안을 지지하였다. '국가 e-헬스 로드 맵' 툴킷 준비와 관련하여 ITU와 WHO의 협력 사항이 소개되었으며, SG2 의장 모크란(Mokrane Akli)은 ITU와 WHO의 협력을 치하하고, 많은 회원국이 툴킷에 주목하고 실행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라포처는 e-헬스 발전 가능성의 핵심으로 e-헬스 표준화 이슈의 중요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총 8건의 기고서가 소개되었다.

연구과제 17-3(전자정부활동의 진척과 개도국에게 도움이 되는 응용분야의 발굴)에서는 총 5건의 기고서가 소개되었으며, 한국은 '한국 온라인 전자조달청 시스템' 기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과제 담당 포컬 포인트(Focal Point)인 하니(Hani Eskandar)는 한국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의 사례가 매우 우수하므로 내년에 관련 내용의 기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과제 22-1(재난 대비, 완화 대응을 위한 통신/ICTs의 활용)에서는 일본 총무성이 2011년 3월 일본 동부에서 발생했던 대지진 후 ICT를 활용한 재난 대응 관련 사례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총 5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한국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고서를 발표하였다. 라포처는 일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유용한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과제 24(ICT와 기후변화)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변화 관련 활동, 고도계를 통한 기후 변화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총 13건의 기고서가 소개되었으며, 한국은 'ISO, IEC 및 JTC의 ITC&CC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하였고, 기후변화 관련 표준화 활동 등을 정리하여 소개한 것에 대한 라포처 그룹의 치하가 있었다.

3. 맺음말

한국은 이번 SG1, SG2 정기회의에 총 13건의 기고서를 발표했으며, 미국, 스위스 등 많은 회원국 및 라포처 의장들로부터 IT 강국인 한국의 경험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기고문 제출 노력에 대한 치하를 받았다. 특히 사이버보안, 인체전자기장노출 가이드라인 개발,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ICT 기술의 응용, 기후 변화 관련 표준화 활동 등에 대하여 주관 라포처 및 의장으로부터 주도적 협력을 요청받고 국내 관계 전문가를 통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회원국의 적극적인 기고서 제출이 요청되었으며, ITU-T/R 관련 부문 의제와의 협력강화, WH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ITU-D 관련 대응에 있어 T, R 부문의 협력체계가 보다 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차기 SG1, SG2 정기회의는 2012년 9월 10일~9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ITU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개도국에 유용한 인포메이션 기고서 추가 제시뿐만 아니라, 액션 기고서의 제안에 보다 역점을 둘 예정이다. 

1) Tokyo Call for Action : 개발도상국의 헬스케어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필요의 긴급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e-헬스 표준화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진행해야 함